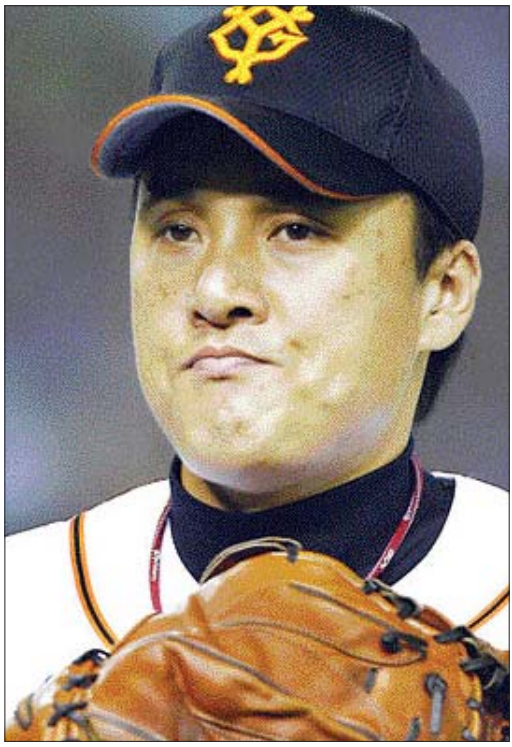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나믹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당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rgy.co.kr 061320-7700, 7714



## 이승엽 위기

요미우리 회장, 추겨냥 직접 비난

“용병 농사 실패...큰폭 전력 보강”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를 우승하고도 일본시리즈에서 진출하지 못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거센 후폭풍에 맞고 있다.

폭풍의 근원지는 와타나베 쓰네키 요미우리 회장이고 그는 2년간 주포로 활약해 온 이승엽(31)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투치’ ‘스포츠투닛’ ‘산케이스포츠’ 등은 23일 인터넷판에서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요미우리가 주니치 드래곤스에 완패한 것을 두고 와타나베 회장이 강하게 비난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와타나베 회장은 요미우리가 벤치 지략 대결에서 밀렸고 용병도 부진해 주니치에 패했다며 하라 다쓰노리 감독과 이승엽을 싸잡아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시리즈 우승을 위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와타나베 회장의 발언에 발맞춰 오른손 거포에 목마른 요미우리가 야쿠르트 스왈로스 외국인 타자 알렉스 라미레스를 데려올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주니치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슬러거 후쿠도메 고스케마저 영입할 것이라는 후속단이 이날 나왔다.

와타나베 회장은 1차전 선발투수를 잘못 예상하고 2차전에서는 투수 가와카미 겐신에게 버스터를 허용, 위기를 자초한 하라 다쓰노리 감독의 작전 실수를 거론한 뒤 곧바로 용병 얘기를 냈다.

그는 “워렌 크로마티, 터피 로즈, 로베르토 페타지니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용병 농사는 실패했다”며 이승엽과 루이스 곤살레스, 데이비드 홀리스 등을 올해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었던 외국인 선수들을 모두 ‘실패작’이라고 규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내일부터 월드시리즈

### 보스턴 7번째 정상 도전

### 콜로라도 첫 우승 노려

‘전국구 빨간양말의 통산 7번째 우승이나, 로키산맥의 창단 첫 우승이다.’

‘기적의 팀’끼리 대결로 불리는 보스턴과 콜로라도의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가 25일 오전 9시(이하 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퀘벵이파크에서 20승 투수 조시 베키(보스턴)와 17승 투수 제프 프란시스(콜로라도) 선발 대결로 막을 올린다.

통산 12번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에 오른 보스턴이 2004년 이후 3년 만에 왕좌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1993년 창단 후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오른 콜로라도가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보스턴은 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1승3패의 열세를 딛고 화끈한 장타력으로 3연승을 달리며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와일드 카드 콜로라도는 포스트시즌 7전 전승 포함, 시즌 막판부터 21승1패라는 압도적인 승률로 첫 패권을 바라보고 있다.

보스턴은 인터리그에서 콜로라도에 통산 4승5패로 열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다시 뚫는다! 정상을 향해...

23일 경남 남해 캠프에서 마무리 훈련에 한창인 KIA선수단이 순발력을 높이는 30m 전력질주 훈련을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호랑이 야성부터 배워야죠”



## 남해 캠프를 가다

전태현·김선빈·박진영·박상신·백용환 내년 신인왕 다짐

### 새내기 5인방

KIA 새내기 전태현(투수)과 김선빈(야수·이상 18)이 때 이른 신인왕 경쟁으로 남해캠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3일 경남 남해캠프에서 마무리 훈련이 한창인 전태현은 “1군에서 중간계투로 뛰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기회가 된다면 선발투수로 뛰는 게 두 번째 목표”라면서 “10승 이상을 올려 신인왕에 오르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2008년 신인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전태현은 사이드암 투수로 좌우 코너를 찌르는 제구력이 강점이다. 여기에 결정구인 싱커가 일품이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 평균 133~140km이며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

전태현은 특히 올해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2회전에서 9이닝 동안 129개의 공으로 팀의 완봉승(삼진 9개)을 이끌며 프로 구단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기대주이기도 하다.

전태현은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전북출신으로는 1998년 이광우(군산상고-원광대) 이후 19년 만에 KIA(전신 해태 포함)의 1차 지명 선수가 되는 영광도 누렸다.

다만, 올해 중반부터 투구자세가 무너지면서 팔 스윙이 짧아진 게 내년 시즌 활약의 변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태현은 구속이 130km 중반 대까지 떨어졌고, 볼 끝도 좋지 않은 상황.

전태현은 내년 시즌 전까지 무너진 투구폼을 되찾아 1군 마운드에 당당히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김봉근 투수코치는 “팔 스윙만 회복한다면 실전에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태현과 함께 신인왕을 꿈꾸는 또 다른 새내기 김선빈.

키 164cm로 국내 프로야구 26년 사상 최단신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된 김선빈은 빠른 발과 강한 어깨, 그리고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다. 김선빈은 또 2년 연속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돼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과 올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특히 김선빈의 최대 강점은 나란적이고 활발한 성격.

선수단 살림을 맡고 있는 김명근 KIA 매니저는 “자신의 작은 키마저 오히려 웃음으로 만들어내는 재치 만점의 귀여운 막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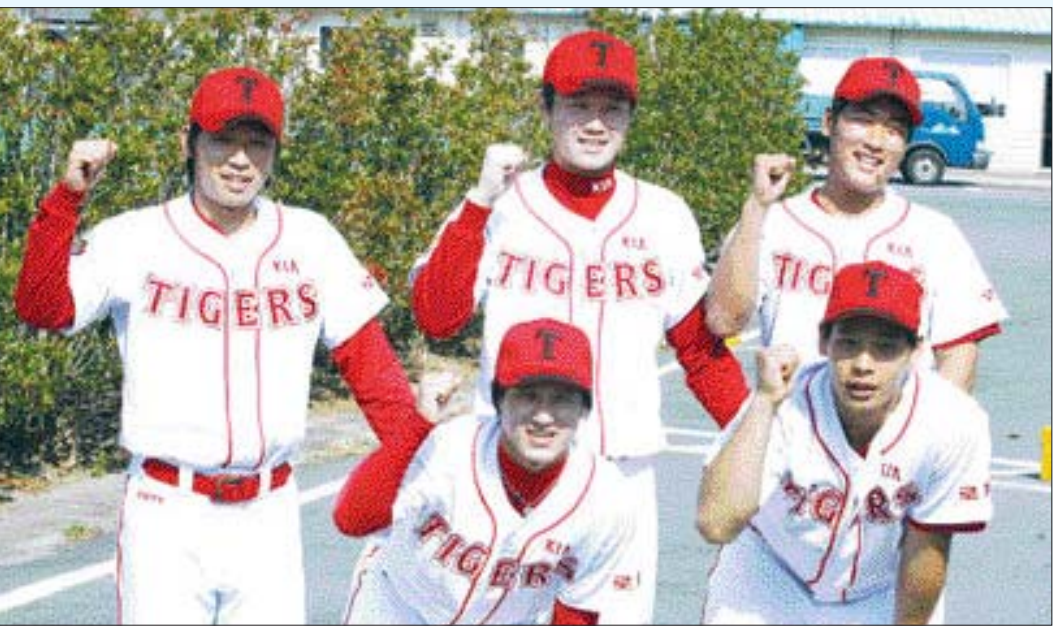
김선빈은 이날 신인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도 “어게 동무는 하기 싫다. 그냥 찍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동료들과 키 차이가 심해 어깨 동무가 되겠다”고 말하며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전 세계 프로야구선수 가운데 자신이 가장 단신”이라는 김선빈은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내년 시즌엔 나란 바달라”면서 “반드시 1군에 입성해 신인왕이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사실 KIA는 해태시절을 포함해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을 탄생시켰지만, 신인왕은 1985년 이순철이 유일하다.

이밖에도 박진영·박상신·백용환이 신인왕 경쟁에 가세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더욱 든든하기만 하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3일 경남 남해 캠프에서 KIA신인 선수 박진영, 박상신, 전태현, 백용환, 김선빈(왼쪽부터 시계방향)이 내년 시즌 활약을 다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여기는 남해

23일 오전 7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묵고 있는 경남 남해군 대한스포츠 캠프내 객실의 불이 하나, 둘씩 켜졌다.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경남 남해군은 10월 말 한 낮 기온이 최고 25도에 육박 하지만, 일교차가 심한 탓에 새벽엔 다소 쌀쌀했다.

트레이닝복을 갈아입은 선수단은 관현희 트레이닝 코치의 지휘로 숙소 주변에서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며 하루 훈련을 준비했다.

몸풀기가 끝난 선수단은 오전 8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A구장(인조잔디) 1, 2조, B구장(천연잔디) 1, 2조로 나뉘어 본격적인 타격 및 수비, 투구 훈련에 들어갔다.

## 밤 9시 넘도록 연습구장 훈련 열기로 가득

타자들은 박희식 선임 타격 코치의 황병희 코치의 지시에 따라 프리 베팅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B구장 1조에 편성된 이종범과 최희섭, 김원섭 등 주력 선수들은 오전엔 평고 훈련과 오후엔 타격 훈련에 몰두했다.

이어 김동태 수비코치의 지휘 아래 수비 훈련에선 각 포지션마다 두 명씩 조를 이뤄 홈 송구와 더블 아웃 플레이 등 다양한 전술·전략을 몸에 익혔다.

투수들은 연습구장 뒷 편에 마련된 투수 볼펜에서 실전에서 쓰는 힘의 60~70%정도로 30~50개씩 연습투구를 던졌다.

전병두는 다소 높은 제구력을 보여 낮게 깔리는

제구력 훈련에 집중했고, 내년 시즌부터 팀에 합류하는 예비역 투수 유동훈은 파워넘치는 피칭으로 김봉근 투수코치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

한 견에선 올 시즌 신인으로 입단한 전태현이 무너진 투구폼을 잡느라 구슬땀을 쏟아냈다.

힘든 하루 일정을 마친 선수단은 오후 5시 30분 이후 풀밭같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녁식사를 마치고가 무성계 자율훈련에 들어갔다.

때문에 남해 캠프의 야간조명은 밤 9시가 넘도록 밝은 빛을 내뿜었고, 구장 내 주차장은 방방이를 움켜쥔 타자들, 운동장은 글러브를 낀 투수들이 내뿜는 훈련열기로 가득 들어차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무등경기장 야구장 인조잔디 부드럽게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인조잔디가 부드러운 소재로 바뀔 전망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인조 잔디를 내년 상반기 프로야구 개막 전에 부드러운 소재로 바꾸기로 했다.

광주시가 야구장에 새로 깔리고 검토 중인 인조잔디는 미국제 ‘필드터프(Fieldturf)’ 제품으로, 천연 잔디처럼 부드럽고 선수가 슬라이딩을 할 때 잔디 속에 두텁게 깔린 작은 고무 알갱이가 함께 움직여 부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드터프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사용 중이고 일본 도쿄돔과 대전구장, 대구 시민야구장 등에도 설치돼 있다.

### 내년 상반기 미국산으로 교체

### 천연잔디 효과·부상 줄어든들

광주시는 무등경기장과 크기가 비슷한 대구 시민야구장의 잔디 설치 비용이 10억가량 더 들 것으로 예산을 편성 중이다.

이 밖에도 시는 야구장 내에 파손된 의자 등을 수리·보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3억 원은 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 측이 각각 11억 원과 2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으며 설치할 잔디의 종류는 구단과 시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 경기장 야구장은 광주에 연고를 둔 기아 타이거즈 외에 중·고교 야구단도 사용하는 등 수요가 많아 천연잔디를 깔 경우 잔디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내년부터는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등경기장에는 지난 2004년 설치를 완료한 플라스틱 소재의 구형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나 탄력성이 부족해 선수들이 슬라이딩을 하다 화상을 입거나 우선시 볼 빠짐이 나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프로배구 올 시즌부터 비디오 판정 도입될 듯

12월1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2007-2008 V-리그에 ‘비디오 판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달 열렸던 KOVO 컵 마산대회 때 심판 판정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비디오를 이용한 판정이 성공적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내년 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맹은 구단과 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달 11일 이사회에서 겨울리그 비디오 판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연맹과 팬들은 ‘도입’ 쪽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연맹은 애초 심판 권위 추락과 경기시간 지연 등을 걱정해 도입에 부정적 의견이었지만 KOVO컵

### KOVO컵에서 시범 실시 성공적

### 판정 정확성 높아지고 항의 줄어

때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는 팀은 경기당 한 차례씩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데 22차례 신청 건수 중 판독 불가였던 4차례를 제외한 18차례 가운데 10차례는 판정이 번복됐다. 수용률이 56%에 이른다.

특히 정규리그 못지 않은 치열한 순위 다툼에도 판정 항의가 줄어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됐고 심판들도 미처 잡아내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효과를 봤다.

김건태 연맹 심판부장은 “합의 판정을 했는데도 기계 판독에서 다르게 나오면 다소 민망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다. 판정의 정확성이 높아졌고 팀들도 불만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배구팬들 사이에서도 비디오 판정 도입 대세론이 확산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비디오 판독 찬반 설문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4천514명의 91.4%에 이르는 4천127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